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6 년 9 월 18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6년 9월 18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나의 싸움" (시, 신현림 - 낭독: 장동인)

한 마음 한 노래 (이야기) ----- 다함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 법정 - 낭독: 김웅)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1-13

화두: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유혹은 그리고 가장 약한 점은 무엇인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산길 2" (시, 이성복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가시나무" (노래, 하덕규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나의 싸움

삶이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일이다

망가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
지상에서 남은 나날을 사랑하기 위해
외로움이 지나쳐
괴로움이 되는 모든 것
마음을 폐가로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운다

슬픔이 지나쳐 독약이 되는 모든 것
가슴을 까맣게 태우는 모든 것
실패와 실패 끝의 치욕과
습자지만큼 나약한 마음과
저승냄새 가득한 우울과 쓸쓸함
줄 위를 걷는 듯한 불안과

지겨운 고통은 어서 꺼지라구!

(시, 신현림 - 낭독: 장동인)

한 마음 한 노래 (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때이다.

한 생애를 통해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누가 감내하겠는가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이다.

좋은 일도 그렇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오만해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덜 갖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살뜰히 챙겨야 한다.
더 검소하고 작은 것으로써 기쁨을 느껴야 한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당했을 때
'도대체 나는 누구지?' 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직위나 돈,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시, 법정 - 낭독: 김웅)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1-13

화두: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유혹은 그리고 가장 약한 점은 무엇인가?....."

일자: 2016년 9월 18일

4:1 예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사십 일이 지났을 때에는 몹시 허기지셨다. 4:3 그 때에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하고 꾀었다. 4:4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4: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4:6 다시 말하였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소. 4:7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4:8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4:9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4:10 성서에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였고 4:11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4:12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마라**.'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4:13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4:1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desert, 4:2 where for forty days he was tempted by the devil.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at the end of them he was hungry. 4:3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is stone to become bread.**" 4:4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4:5 The devil led him up to a high place and showed him in an instant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4:6 And he said to him, "I will **give you all their authority and splendor**, for it has been given to me, and I can give it to anyone I want to. 4:7 So if you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4:8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4:9 The devil led him to Jerusalem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4:10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carefully; 4:11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4:12 Jesus answered, "It says: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4:13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한 마음 한 노래 (시)

산길 2

한 사람 지나가기 빠듯한 산길에
아카시아 우거져 드문드문 햇빛이 비쳤습니다.
길은 완전히 막힌 듯 했습니다.
이러다간 길을 잃고 말 거라는 생각에,
멈칫멈칫 막힌 숲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떨어서,
가슴 조이며 우리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언제나 끝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었지요

(시, 이성복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가시나무

하덕규
made by musicday

B \flat E \flat B \flat F
 내속 엔— 내가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 네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B \flat
 엔— 헛된바램들— 로— 당신의 편할곳 없 네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엔— 내가어쩔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B \flat
 엔— 내가이길수 없는— 슬픔— 무성 한 가시나무숲— 같 네 바람만
 E \flat B \flat E \flat C F \sharp
 볼면— 그대마른가 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실곳을
 E \flat B \flat E \flat C F
 찾아— 지쳐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찢려날아가 고 바람만
 G \flat D \flat E \flat C F
 볼면 외롭고또괴로 와 슬픈 노래를 부르던날이 많았는데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B \flat
 엔— 내가너무도 많아— 서— 당신의 실곳 없 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잘 이용하여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성결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실패로 희망을 배우게 하소서

성공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소서

불안으로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기쁨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비난으로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칭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위험으로 담대함을 배우게 하소서

고통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기도문은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베일리(1886-1960)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